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 오늘의 전례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마태 15,21-28 참조)

딸을 치유해 달라고 호소
한 부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가나안 사람이었
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짐짓
“강아지”를 말씀하시지만,
그 부인이 굴하지 않고 계
속 간청하자 “믿음이 크다”
는 최상급의 칭찬을 하시
고 청을 들어 주십니다.

103위 성인에 더하여 이제
124위 복자를 모시게 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매
달립니까? 누가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렇게 할 수 있
겠습니까?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

제1독서 이사 56,1,6-7

제2독서 로마 11,13-15,29-32

복 음 마태 15,21-28

입 당 송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화 답 송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빵 부스러기

김도울 요셉 신부 | 불로본당 주임

최근에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겨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페니키아지역으로 가시어 만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 주는 자비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돌보러 왔다.’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또 말합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주님답지 않게 가나안 여인에게 전혀 자비롭지 않습니다. 자비를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거절하실 뿐 아니라,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자 우리가 보기에도 모욕적인 ‘강아지’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간청합니다. ‘빵 부스러기’ 곧 ‘구원의 편린’이라도 딸에게 내려주시길 자존심을 접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복음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신앙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존심 없이 비굴하게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 데에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의 중동사태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듯이, 당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갈등을 헤아릴 수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면서 중립자의 입장을 지키신 주님, 그러나 구원의 문을 닫아 두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족들 간의 갈등이나 집단이기주의에 갇히지 않으신 주님의 영적 유연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경직되지 않고 정의를 빙자한 무사안일의 마음대신 무엇이 사랑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열린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은총의 촉진자 보다는 은총의 세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자리가 마련된 아버지의 집입니다.”

<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47항 >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 시복 및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 특집 ⑥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로마에서 거행된 두 번의 한국 순교자 시복식



김효애(크리스티나),
‘124위 복자들의 한국적 천상 낙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
위께서 천상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이
다. 소재목은 “한국의 124위 복자,
그대들은 내 포도나무의 튼튼한 가
지이다.”이다.

교황께 올리는 상소문으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에 참여한 조선신자들

1925년 7월 5일 10시 바티칸 대성당에서는 조선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당시 10만을 헤아리는 가난한 한국교회의 조선인 신자들은 조선복자시복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주교 두 분과 『경향잡지』의 편집을 맡고 있던 한기근 신부가 참석했고 복자들의 친인척이었던 장면과 장발 형제가 뉴욕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 중에 로마에 당도했다. 함께 떠나지 못하는 조선신자들은 한 신부에게 교황께 강복을 구하는 상소문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비록 육체는 참례하지 못하오나 마음으로는 조선성직자 대표 한기근 신부와 같이 참례하니 조선 일반신자에게 강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문이었다. 장면 형제가 이 상소문을 교황께 올렸고 교황님은 강복장을 주었다. 시복식은 일반인들에게 천주교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3년 후 두 번째 시복식 때에는 신자가 75

만 명으로 증가해 있었다.

바티칸에서 아리랑을 합창한

1968년 병인순교자 24위 시복식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병인순교자 26위 중 24위의 시복식이 있었다. 한국에서 민간인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136명의 순례단과 서독에 파견된 간호원 65명, 그리고 유럽에 사는 유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시복될 남종삼의 후손 7명도 함께 했다. 미사집전 사제도 한국인 김수환 대주교였다. 이튿날 한국 신자들은 교황님을 특별 알현했다. 1시간 20분이나 걸린 알현에서 전원이 아리랑을 부르며 마무리를 했다. 첫 번째 시복식에는 한국인이 단 3명 참여했지만 두 번째 시복식에는 그의 170배에 달하는 신자가 참석했다. 이후 교회에서는 엄청난 순교현양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시성식을 당기게 되었다. **필**

출처: 월간 빛 8월호 「100년의 시간 속을 걷는다」

김정숙(소화테레사) 영남대 문과대학 국사학과 교수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②

아니 부르시면 어찌 하리오?

허인백 야고보 (1822 - 1868)의 순교이야기



허인백 야고보
(1822 - 1868)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성당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바쳐보자. 그때마다 늘 위로로 받는 말씀이 생각난다. 12처에 있는 기도문이다. 장차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에게 닥칠 양이면 차라리 지금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순교자 허인백 야고보는 혹시나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쩔까 염려하며 자주 순교의 바람을 주님께 드렸다.

1860년 경신박해 때 붙잡힌 그는 언양과 경주 감옥에서 8개월이 넘도록 잦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며 굳건히 신앙을 고백하던 중 박해를 중단하라는 임금의 명에 따라 뜻밖에 석방이 되었다. 그 후 가족을 데리고 교우촌이 있는 울산 죽령 산중으로 이주하였다. 낮에는 나무 그릇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고, 밤으로는 묵상 기도로 영혼을 돌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치명하지 못한 것을 원통히 여기며 “나 같은 대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명하련만 아니 부르시면 어찌 하리오.”하며 자주 순교의 원의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의 기도와 수계생활은 그가 체포되기 훨씬 전에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24세에 입교한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와 각방을 쓰며 남매처럼 지냈으며, 고신 극기는 물론 겸손과 인내의 덕을 쌓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를 많이 도와주었다.

그런 그에게 순교의 기회가 다시 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였던 죽령 교우촌도 병인박해가 시작된 지 두 해가 지난 1868년에는 포졸에게 발각되었고,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때 야고보는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착실히 실천하여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당부한 후 경주로 압송되었다. 경주 진영에서 참혹한 문초가 시작되었으나 그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였을 뿐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거나 다른 신자들을 밀고하지 않았다. 그는 절도사가 있는 울산으로 이송되어 더 혹독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순교자 허인백 야고보님! 언제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꼭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필리피**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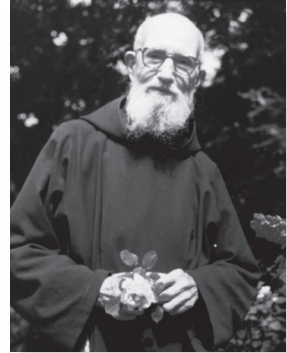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랑

자동차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에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명물 하나가 있는데, 바로 5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일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솔라누스 케이시(1870~1957)는 사제가 되고 싶어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성적이 나빠 간신히 서품을 받았습니다. 카푸친 회의 사제가 된 뒤에도 장상은 케이시 신부에게 강론하는 자격과 고해성사 주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케이시 신부에게 허락된 역할은 문지기 노릇과 병자나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 뿐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봉사하게 된 케이시 신부는 성당을 찾아오는 노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저 그것뿐이었는데도, 케이시 신부를 만나러 오는 이들은 점차 늘어나서 수천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인 디트로이트로 돌아가 일하게 되자 거기서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케이시 신부가 병들어 죽자 수만 명의 노동자들과 노숙자들이 성당에 몰려왔습니다. 케이시 신부가 일하던 뉴욕 맨해튼과 디트로이트에는 노동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케이시 신부가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자발적으로 모인 '케이시 길드'에서 카푸친 수도회와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케이시 신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1995년에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8월 17일	성 리베라토(수도원장, 순교자, 카프사, 483년) 성 히아친토(신부, 선교사, 크라쿠프, 1185~1257년)
8월 18일	성 라우로(석공, 순교자, 2세기), 성 아가피토(순교자, 팔레스트리나, 274년) 성녀 헬레나(황후, 250~330년)
8월 19일	성 루도비코(주교, 툴루즈, 1274~1297년), 성 모크타(수도원장, 주교, 라우스, 445~535년) 성 요한 에우데스(신부, 설립자, 설교자, 1601~1680년), 성 식스토 3세(교황, 440년경) 성 베르톨포(수도원장, 보비오, 640년)
8월 20일	성 루치오(원로원, 의원, 순교자, 311년), 성 아마돌(은수자) 성 베르나르도(수도원장, 교회학자, 신학자, 클레르보, 1090~1153년) 성 사무엘(구약인물, 예언자, BC 11세기)
8월 21일	성 록소리오(군인, 순교자, 303년), 성 보노소(순교자, 363년) 성 비오 10세(교황, 1835~1914년), 성 시도니오(주교, 클레르몽, 480년) 성 아브라함(수도원장, 스몰렌스크, 1221년)
8월 22일	성녀 안투사(순교자, 셀레우키아, 257년)
8월 23일	성녀 로사(은수자, 3회원, 리마, 1586~1617년), 성 에우제니오(주교, 아드스트로, 18년경) 성 클라우디오(순교자, 303년경), 성 필립보 베니시오(총장, 1233~1285년)

■ AYD / KYD 발대식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삼덕젊은이성당에서 아시아청년대회/한국청년대회 발대식 미사를 봉헌하셨다.

■ 제4회 대구 / 잘츠부르크 청년교류모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성모당에서 교구를 방문한 잘츠부르크 대교구 청년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하셨다.

미디어 소식



영화 <그 사람, 그 날>

평화방송과 함께한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3년간의 발자취와 세상을 향한 그의 물음에 답을 찾아나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 사람, 그 날>, 당신이 몰랐던 그가 새롭게 찾아옵니다.
본 주보 지참시, 1인에 한해 1천 원을 할인!!

상영관 : 동성아트홀, 롯데시네마 대구, CGV 대구현대

영화 <마더 테레사의 편지>

평범한 수녀에서 빈자의 어머니로 거듭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마더 테레사의 고뇌와 진실의 역사를 진솔하게 그려낸 영화 <마더 테레사의 편지>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기념하여 8월 21일(목)에 개봉합니다.

8.21(목)~31(일)까지 본 주보 지참시, 1인에 한해 1천 원을 할인!!

상영관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 <http://blog.naver.com/TeresaLetter>



계속 열심히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18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 후원회월례미사	8월 18일(월) 11:00 수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성소 | 피정

가나 피정

기간: 9.13(토) 14:00~14(일) 16: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참가비: 1인 5만 원(선착순 30쌍)
신청마감: 9.11(목) 17:00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33주년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8.22(금) 23:00~24(일) 15:00
출발: 시민회관 16:00(성심교육관)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 카타리나, (010)4515-1114

성경 통독 피정

기간: 8.30(토) 14:00~31(일) 14:00
대상: 젊은 미혼 여성 / 회비: 2만 원
장소: 용인 수지성심교육관
준비물: 성서, 세면도구, (010)9176-1212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예수성심에로의 초대

기간: 8.30(토)~31(일) / 9.27(토)~28(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길을 찾는 미혼 여성
신청: (010)2649-204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모임

일시: 8.24(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 수련

2박 3일: 8.22(금) 17:30~24(일)
4박 5일: 8.25(월) 14:00~29(금)
8박 9일: 9.22(월) 14:00~30(화)
에니어그램: 9.4(목) 15:00~6(토)
문의: (031)946-2337~8

행복을 위한 여정

기간: 9.27(토) 15:00~28(일) 15:00
10.3(금) 15:00~4(토) 15:00
대상: 여성 누구나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9056-9005

교육 | 모집

성모기사회(7080) 정기 모임

일시: 8.24(일) 14:00
장소: 쾰벤뚜알프란치스코회수도원
문의: (070)4266-0047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아학연수

2차: 8.24(일) 8, 12주
3차: 9.20(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가능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정가능)
문의: 대구청소녀수련원, 593-1273

마음으로 책임기에 초대합니다

일시: 9월 부터 (매주 금)
시간: 19:00~21:00(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 서원
대상: 남, 녀(30~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대가대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음악)
음악원 1:1레슨/교양·문화강좌/교회
음악/자격증/전문가양성 과정 등
모집: 8.29(금)까지 / 개강: 9.1(월)부터
장소: 감삼동 / 문의: 660-5554~7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
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
의 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시 서구 / 문의:(032)280-15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옥수(아네스) 010-5048-7739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동기, 공부방법, 노트필기, 교과서적용, 학습플래너)
학습코칭반 / 글분석반 / 다중지능검사
☎ 752-0966 (윤종선 가빌로)
수성구청역 2번 출구 KBS 앞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 병리전문의 이종구 (마티아)
전 대구의료원 원장
범어네거리 4번 출구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

스피치! 모든 일의 가장 핵심입니다!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바나)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피나)
이 범 수(대건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차이나포럼 20기 원우모임
· 개강 : 9.22(월) 19:00 (현재 접수중)
· 장소 : 대가대 평생교육원 (감삼동)
· 내용 : 석식, 명사특강, MT, 중국현지학습 등
· 수업료 : 90만 원 (6개월 과정)
교수/원장/경영학박사 김 영택(바오로)
010-9494-8169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미소나리 출장뷔페
미소나리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 이형문(안토니오)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8.22(금) 오전 10시
 장소: 가톨릭군위묘원 성당

행사 | 모임

시북 경축문화예술제

전시회: 8.20(수)~24(일), 교구청 내
 음악회: 8.23(토), 대구시민회관
 문의: 교구평신도담당, 250-3057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일시: 10.14(화) 10:00
 장소: 성서 실내게이트볼 구장
 접수마감: 8.26(화)
 문의: 사목국, 250-3057

교육 | 모집

2대리구 거룩한 독서 성서 모임

일시: 9.1부터 (매주 월) 10:00 / 19:30
 장소: 수성성당 교육관
 강사: 박성대 요한 신부(2대리구 주교대리)
 교육비: 3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2대리구 사무실, 743-7010

24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9.4~10.2(매주 목) 5주간
 시간: 9:30~14:30 / 회비: 10만 원

장소: 포항 덕수성당
 주관: 교구 가정담당
 문의: 봉사자, (010)6499-3114

평신도신학교육원 수강생 모집

개강일: 9.1(월)부터
 과목: 교회론, 미사와 가톨릭신앙, 철학, 여성학, 그리스도교 미술의 세계, 성경인물 40인, 부모교육, 복음의 기쁨, 신앙의 무대 역사와 그 문화, 수도원사, 성경과정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 고전무용: 9.1(월) 10:00
 오카리나: 9.1(월) 12:30
 상담심리 2급: 9.2(화, 수) 14:00
 하모니카성가: 9.3(수) 13:00
 문의 및 신청: 254-6115

앞산 밑 북카페 가을 강좌

기간: 9.2(화)부터 / 문의: 622-1900
 노자와 놀기(화 10:30): 최성준 신부
 「물질의 심장읽기(수 14:30): 이문희 대주교
 교부들의 삶과 신앙(목 15:00): 정래곤 신부
 생활음악교실(금 14:30): 김정자 선생

50차 선교대학 개강

일시: 9.20(토) 10:30~16:30
 장소: 대구 계산문화관 / 5천 원
 주제: 감동선교, 강사: 이판석 신부
 마감: 9.14(일) 선착순 50명
 신청: (사)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관덕정 주관 9월 성지순례

일자: 9.21(일), 청주교구 배티성지
 신청: 8.20(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가톨릭기술사회 회원 모집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아 그리스도안에서 영성생활 향상과 교회의 건설기술지원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대상: 교구내 기술사 자격을 지닌 평신도
 문의: 박영준 바오로, (010)3528-5489

채용 | 안내

가톨릭근로자회관 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필소개서, 학력증명서
 마감: 9.5(금) 발표는 개별통지
 문의: 253-1313

교구 신자 상호별 전화번호부 발행

출판(무료) 및 유료광고 신청
 대상: 교구 내 신자 사업자
 문의: 본당 사무실 또는
 월간〈빛〉 총무부
 250-3158 / 252-5392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 오이타, 유우인(4월)
 ※ 출발일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호텔(유스티노)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과 실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올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예리)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올리안나)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